"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그들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글. 병원장 박재만(타대오) 신부

언더우드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아름다운 기도문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낙서장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한다. 언더우드(H. G. Underwood, 1859-1916)는 1885년 4월 5일(부활주일)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한국에 도착하여 30여 년 동안 선교와 계몽 그리고 교육 활동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였다. 그는 새문안교회와 연세대학의 전신인 연세전문을 설립하였고, 영어성경의 우리말 번역과 영한사전 편찬도 하였다. 그는 일제강점기의 어렵고 곤궁한 상황에서 선교와 교육 활동을 하는데 많은 역경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복음의 기쁨을 살면서 그 기쁨과 행복을 전파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언더우드는 선교 중에 장애자나 아픈 이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고충이나 아픔 그리고 슬픔을 공감하며 함께 나누고 싶어 했을 것이다. 한편 그는 자신이 정상인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새삼 깨닫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자신은 이미 누군가의 간절한 소망을 다 이룬 채 살고 있었고, 그들이 바라는 기적조차 자신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와 행복을 느낀다. 이를테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또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건강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느끼며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고민하지 않고 지금의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날마다 깨닫기를 바란다.

'언더우드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 감사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은 데도 제대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을 새삼 깨닫게 하며 이렇게 질문하게 한다. 우리는 일상에 그토록 많은 고마운 것들이 있음에도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다. 첫째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둘째 현재 자신이 처한 상태나 지금 소유한 것들을 고마워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바라며 현실을 불만스러워하기 때문이 아닐까? 셋째 많이 소유하고 높은 위치에 오른다 해도 아직도 무엇인가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에 감사를 느끼거나 행복을 느낄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닐까?

'언더우드의 기도'는 우리가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를 일깨워준다.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잃게 되었을 때 그것의 진가를 알게 된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참으로 고마운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왜 진작 기뻐하고 행복해 하지 못했는지 안타까워한다. 예를 들면, 볼 수 있다는 것의 가치를 시각장애인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청각장애인만큼 실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또한 환자만큼 건강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건강한 사람들이 사소한 것으로 불만스러워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당신처럼 건강하다면 그까짓 것에 조금도 불만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놓치기 전에 지금 당장 그 가치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는 단순한 일부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항상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가까운 데에 있는 행복을 찾는 비결이다.